있다.

미세 맥관과 신경의 보전, 접합, 개통이 이루어지자 덩어리체 옮겨 부치는 en block reconstruction이 뒤를 잇고 뇌를 그대로 둔 채 뇌저골을 떼어 부치는 여러 과의 협동 수술이 점차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No. 1.

족무지 유리피부퍾을 이용한 급성 수무지 손상의 치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임홍철 • 서승우 • 홍준석 • *전승주

족무지 유리피부편은 1980년 Morrison and O'Brien에 의해 수무지 중수지골간 관절 이하부절단에 의한 만성 수무지 결손환자의 수무지재건을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어 수지기능의 회복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으나, 골이식을 동반한 수무지 재건을 시행함으로 원격추시결과 대부분의 이식골 골절 및 골흡수에 의한 후유증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가능한한 골흡수를 방지하고 수무지기능을 회복하고자 이술식을 이용하여 1983년 9월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한 11명의 급성 수무지 손상환자에 대하여 수무지 재건을 시도하고 원격 추이를 통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1. 대상은 11명의 환자로 남녀 비율은 8:3이었고, 연령은 3세부터 50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8.8세였다.
- 2. 손상원인의 대부분은 기계적 손상으로 11례중 10례를 차지하였다.
- 3. 수술방법은 Flap only 6례, Flap with iliac bone graft 4례, Flap with phalangeal bone graft 1례였다.
- 4. 수술후 평균 6년 1개월 추시기간동안(최단 1년, 최장 9년) 골흡수 3례, 이식골 골절 1례, 감염 2례, 연부조직과사 3례를 보였다.
- 5. 급성 수무지 손상후 속발된 연부조직괴사 발생시 조기에 자가수지골을 이용한 Wrap-around Free Flap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급성 수무지 손상시 추천할만한 수술방법이라고 생각된다.

No. 2.

미세수술을 이용한 발뒤꿈치 재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이광석ㆍ허창룡ㆍ김학윤*ㆍ서정대

족저 피부 및 연부조직은 보행시 체중을 전달받는 부분으로 압력에 잘 견뎌야 하는데 외상 혹은 종양절제후 이 부위의 연부조직 또는 골 결손은 심각한 기능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최근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수술의 발달로 유리 생피부편 및 생골편을 이식하는 방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 1. 성별로는 남자 19례, 여자 3례이며 평균 연령은 23세였다.
- 2. 피부결손 및 골결손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등의 직접적 외상에 의한 경우가 21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례에서 화상에 의한 반흔 조직의 궤양형성이었다.
- 3. 생피부편에 이용된 혈관은 족배동맥이 11례로 가장 많았고, 심회선장골동맥이 2례, 표재성 회선장골 동맥이 2례, 외측회선대퇴동맥이 2례, 요골동맥이 2례, 흉배동백이 3례였다.
- 4. 생골편의 평균 크기는 4.5×3.5cm²이었고 생피부편의 평균 크기는 12.1×9.2cm²였으며, 신경이식술

No. 1.

Wrap-around Free Flap in Acute Thumb Injury

H.C. Lim, S.W. Suh, J.S. Hong, S.J. Jeon*

Department of the Orthopaedic Surgery, Guro Hospital Th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Firstly the wrap-around free flap from the great toe was transferred successfully by Morrison and O'Brien in 1980 for reconstruction in chronic case of amputated thumb distal to the MP joint.

Since then, significant bone peg resorption and grafted bone fracture have been reported in most of cases after operation.

We have performed thumb reconstructions within 2 weeks after injury in 11 cases which included acute crushing injuries or failed replantation of thumb at Guro Hospital from September, 1983 to October, 1993.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re were 8 males and 3 females and the mean age was 28.8 years old ranged from 3 years to 50 years.
- 2. The most common injury mechanism was machingry injury in 10 of 11 cases.
- 3. We Have performed thumb reconstruction by using wrap-around free flap from the great toe without bone graft within 2 weeks after injury.
- 4. During 6 yeras and 1 month mean follow-up period, there were bone resorptions in 3, grafted bone fractures in 1, infections in 2 and soft tissue necrosis in 3 cases.
- 5. We obtained satisfactable results in respect of function and cosmesis and urged to use this flap for reconstruction in acute thumb injury.

No. 2.

The Heel Reconstruction by Microsurgery

Kwang Suk Lee, M.D., Chang Young Huh, M.D., Hak Yoon Kim, M.D. and Jeong Dae Suh,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The heel, with its specialized fat for shock absorption at heel strike and large surgace area for balance and weight bearing, is a important component of normal ambulation. Despite of distinguished improvement in the field of microsurgical free flaps, the choice of reconstruction of the heel has been remained controversial. We reviewed 22 cases of the heel reconstruction using vascularized free flaps from January, 1980 through May, 1993 at the Department of Orthopadic Srugery of Korea University Hospita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etiology was traumatic in 21 cases, and chronic ulceration due to burn in 1.